얼굴 근심 빛이 사라지는 기도

(사무엘상 1:1~28)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얼굴 근심 빛이 사라지는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얼굴 근심 빛이 사라지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얼굴에서 근심 빛이 없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잘 배우고 익혀서 언제나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전과 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브닌나와 한나라는 부인이 둘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브닌나가 화가 나서 늘 한나를 자식을 못 낳는 여인으로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한나가 브닌나로 인한 격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또한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실로의 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얼굴의 근심 빛이 사라지려면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져야 하는데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문제 이전에 우선 근심이 사라지는 기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밥을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의 관계를 생각해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척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애절한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다고 여겨서 한나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존재입니다. 선민의 역사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신정적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이 과도기의 100여 년간 사무엘은 전국적 지도자가 됩니다. '전국적 지도자'란 이전에도 사사들은 있었지만 국지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사무엘은 선민의 나라를 신정적 왕정체제로 바꾸는 과도기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셨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엘가나 집안의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때서야 아들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결과로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문 5~6절에 "브닌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 뒤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 한나가 임신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임신하게 하신 이 두 사이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고, 어차피 사무엘을 낳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변하고 도달하게 될 한나의 마음 상태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한나가 잉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고,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나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였는데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데 이러한 이름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내가 아들을 낳아도 이미 그 아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나실인의 제도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성인이 된 뒤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을 한나가 드린다고 할 처지도 아니고, 나실인의 규정도 의미를 가질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자기 멋대로 나실인으로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서원의 기도는 본래의 서원의 제도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표현되는 '아들을 바친다.'는 서원의 기도가 한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 자체는 서원이나 나실인 제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에서 한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적 브닌나의 도발에 격분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울며 먹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의 잔치자리에서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인 이상 열 아들이 있어도 한나의 기쁨은 남편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편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슬퍼하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그것이 한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냐?'는 질문은 부부 간에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엘가나 대신에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면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키입니다.
이 관점에서 '태어날 아들을 드리겠다.'는 한나의 서원을 살펴보면, 남편 엘가나가 던진 질문을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질문을 받고 성소에 와서 서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술주정을 하는 줄로 오해하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심정을 통한 것'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쏟아 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 가서 '마음'이라는 '양동이의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동이 안에는 몇 년 동안 브닌나로 인해 격분했던 것과 눈덩이처럼 부푼 아들이 없는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버리면 비어있는 상태로서 시원섭섭하게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의 염려걱정이나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로 차 있던 마음을 버리자 빈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얼굴에서 수색이 없어졌는데 남편 엘가나가 질문한 질문이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 아들보다 너에게 못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때에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서원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해산할 한나 자신이었습니다. 한나 자신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밀착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내보내시려고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잉태하고 낳게 하시면, 브닌나의 아들과 경쟁시키며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에 브닌나로 인해 고통을 겪게 하셔서 도저히 아들을 생각하다가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생각을 다 쏟아 붓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열 아들보다도 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 못하시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되면 기쁨으로 삼고 저렇게 되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수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나처럼 다 쏟아 붓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완연합

니다. 이럴 때에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가 가능합니까?
엘리가 성소 입구의 기둥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이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전 바깥의 물두멍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여자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이고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본래 여자는 성소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중앙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던 시기였기에 한나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한나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번제단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를 '엘리 제사장이 성소의 문설주 옆에 앉아 있을 때'라고 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씻어야 한다.'는 뜻으로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러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을 지나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고백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할 때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브닌나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자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셔도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한나가 브닌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진 자를 울게 할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울 이유는 단 한 가지로 내 이웃이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의 의미가 한나의 마음속에 적용되고, 십자가 번제단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방해꾼 노릇을 하던 우리가 죽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수색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마음에 끌어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번제단을 붙잡고 넘어감으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게 됨으로 수색이 없어지는 한나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